

피랍선원 전원 구출 화순 최진경씨·순천 정만기씨 가족

“이렇게 빨리 구출되다니 꿈만같아”

“이렇게 빨리 무사히 구출될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1만1500t) 선원들이 21일 해군 청해부대 최영환에 의해 피랍 6일 만에 구출된 가운데, 이 지역 출신 선원들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화순이 고향인 삼호주얼리호 3항해사 최진경(25)씨의 아버지 최영수(52·운수업)씨는 “아들이 선원이 된 지 5개월 만에 상상으로 못했던 일이 벌어져 가슴이 참으로 막막했었다”며 “빠른 시간에 이렇게 구출돼

알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웃음을 지었다.

최씨는 “아내는 6일간 밥도 먹지 못했고, 온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아

들이 무사히 구출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부모들 심정이 다 그렇듯, 구출작전 소식이 들리자 차

최씨의 1남 2녀중 첫째인 진경씨는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 학부를 졸업하고, 지난해 8월 방위산업체 근무(3년)로 삼호주얼리호에 승선했다. 최씨 집은 막내딸인 보라(22)씨도 목포해양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바다 가족’이다.

외항선 선장이 꿈이었다는 아들 에 대해 최씨는 “배를 무척 좋아해 어렸을 적부터 해양대 가기를 원했었다”며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나도 안 다치는 등 뭔가 운이 따랐는데 이번에도 천운이 작용한 것 같다”고 웃으며 전했다.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인 화순 출신 최진경(25·3항해사)씨의 아버지 최영수(52)씨가 아들의 무사구출 소식을 기뻐하며, 가족사진 속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분마다 한 번씩 울리는 축하전화에 연신 함박웃음을 짓던 최씨는 “아직 얼떨떨한 기분이지만 빨리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리움을 나타냈다.

함께 구출된 기관장 정만기(58·

순천)씨의 사위 윤승준(28·순천)씨에 “아내가 장인 피랍 이후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구출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원침 (8227) 김종두



“신정환 죄질 나쁘다”

檢, 구속 여부 추후 결정

방송인 신정환씨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의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1일 신씨를 불구속 수사로 했다. 언론 보도와 관련, “신씨의 신병처리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술을 받은 다리에 문제가 생겨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일단 석방한 것”이라며 “신씨가 구급을 감내할 몸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씨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1억3000만원 가량의 도박을 하고 해외 도괴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광뉴스

일가족 3명 음독

전북 완주서 ... 兄 부양 갈등

21일 새벽 2시께 완주군 웅진면 구억리 김모(55)씨의 집에서 김씨와 김씨의 형(57)이 쓰러져 실음하고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아내(43)는 오른쪽 허벅지에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아들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죽이려 한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에 달려 왔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는 제조제 병과 흉기가 발견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중풍을 앓고 있는 형에 대한 부양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가족 등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가족들에게 강제로 독극물을 먹인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호프집서 여성손님 보며 음란행위

상나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모 공기업 직원 송모(45)씨는 21일 새벽 2시35분 광주시 남구 월산동 A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24)씨 등 2명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

○송씨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김씨의 친구 이모(24)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이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때렸는데, 경찰에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오현섭 前 여수시장 비리 연루

시·도의원 등 22명 징역형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여수시의원·전남도·도의원 등 2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여수시의원 15명과 뇌물 전달책 7명 등 2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이 받은 돈을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해 1인당 500만원~3700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 중 전남도의원 서모씨 등 1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뇌물 전달책 박모씨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여수시의원 유모씨 등 3명은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형됐다.

전남도의원 서모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등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은 징역 10월~1년을 구형받았다. 뇌물전달책 박모씨 등 7명(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은 징역 8월~2년을, 전 시의원 유모씨등 전현직 시·도의원 3명(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은 전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을 뒤흔든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들은 여수 시내 야간경관 조형사업과 이순신 광장 조성 사업체로부터 모두 6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된 오 전 여수시장의 측근 주모씨 등으로부터 시정을 잘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 안팎의 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무원 상대 금품 뜯은

일간지 주재기자 영장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천)는 21일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광주·전남지역 모 일간지 나주시지 주재기자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나주시청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트집 잡아 수백만원의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나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 수백 만원을 가로챈 정황도 포착해 사기 혐의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구제역·AI 살처분 ‘축생 천도제’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소·돼지·닭·오리 등의 넋을 위로하는 ‘비명역사 축생 천도제’가 21일 광주 시 치평동 무각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구제역 백신 접종 송아지 65마리 폐사

어미소 유산도 잇따라 ... 방역당국 원인 조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이후 전남지역에서 송아지 폐사와 어미소 유산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송아지 65마리가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장흥 9마리를 비롯해

장성·담양 각각 4마리, 구례 2마리, 고흥 1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장성의 경우 북이면 한우 농가 1곳에서 지난 18일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은 송아지가 폐사한 이후 이 지역 인근 한우농가 3곳에서 잇따라 생후 5일에서 5개월된 송아지 3마리가 예방백신 접종 뒤 숨졌다.

송아지 폐사 이외에도 구제역 예방

가 폐사하고 있다”며 “가임소도 17만 8000마리 중 70%정도만 임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백신접종후 송아지가 폐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주말까지는 수의사의 검안을 통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백신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소 2만9850마리에 대한 추가 접종을 백신을 수령하는 2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소와 종돈돼지 65만9000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16일부터 시작해 3월말에 끝낼 계획이었지만 백신이 동나면서 접종을 중단했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학 등록금 동결 잇따라

남부대 동참 ... 3곳으로

남부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남부대학교는 21일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의 휴학과 학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어, 학교법인 우암학원의 남부대학교·전남과학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대학교 조성수 총장은 “물가 상승과 대학의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곳은 전남대·순천대 등 국립대 2곳을 포함해 3곳으로 늘었다. 전문대학은 우암학원의 전남과학대학과 동강대학, 서강정보대학, 광주보건대학 등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경찰에 신고” 여자친구 폭행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한 조직폭력배 구모(30)씨를 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15일 정작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폴리텍 V 대학 공학관·기숙사 기공식

한국폴리텍 V 대학은 21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캠퍼스에서 하병기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강계주 광주시 부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학관·기숙사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하병기 이사장은 이날 오전 광주캠퍼스 회의실에서 2011년 첫 전국 11개 권역 학장단 회의를 갖고, 올 졸업생 1만1000명(현 취업률 80%) 미 취업자 취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허 이사장은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취업으로 바뀌면서 2년제 이사의 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대학을 다시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무려 45%에 달한다”면서 “이들 우수

인력을 양질의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인문학과 공학을 연결하거나 같은 공학 계열이라도 관련성이 강한 다양한 분야를 습득해 기업이 효율적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는 과정이다.

그는 또 “올해부터 전문직에서 은퇴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3~6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시니어 기술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폴리텍대학이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동시에 고급 시니어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8분
해질 17시 50분

달돋이 20시 46분
달질 08시 52분

추위 주춤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내륙지방에 눈이 내리겠다.

광주	구름맑음	-6/4℃
목포	구름맑음	-4/3℃
여수	맑음	-4/5℃
나주	구름맑음	-7/5℃
완도	구름맑음	-2/5℃
구례	구름조금	-8/4℃
예산	구름맑음	-5/6℃
장흥	구름맑음	-5/5℃
순천	구름조금	-5/5℃
영광	구름조금	-7/3℃
진도	구름맑음	-3/4℃
전주	구름맑음	-9/3℃
군산	구름맑음	-8/2℃
남원	구름조금	-11/3℃
속산도	구름맑음	0/3℃

서울	구름맑음	0/5℃
인천	구름맑음	0/5℃
대전	구름맑음	0/5℃
전주	구름맑음	0/5℃
대구	구름맑음	0/5℃
부산	구름맑음	0/5℃
목포	구름맑음	0/5℃
여수	구름맑음	0/5℃
제주도	구름맑음	0/5℃

충청	구름맑음	0/5℃
강릉	구름맑음	0/5℃
청주	구름맑음	0/5℃
울릉도	구름맑음	0/5℃
독도	구름맑음	0/5℃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북서~북

북서~북

0.5~1.5m

1.0~2.0m

0.5~1.5m

1.0~2.0m

북서~북

북서~북

0.5~1.0m

1.0~2.0m

1.0~1.5m

1.0~2.0m

북서~북

북서~북

1.0~1.5m

1.0~2.0m

1.0~2.0m

후오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북서~북

북서~북

0.5~1.0m

1.0~2.0m

1.0~1.5m

1.0~2.0m

북서~북

북서~북

1.0~1.5m

1.0~2.0m

1.0~2.0m

날씨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최저/최고

-4/4

-7/-1

-6/-1

-6/0

-6/0

-4/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우암학원 창학 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